



불자 여러분과 함께한 10년...

세찬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
장명등(長明燈)의 정신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
지혜와 복덕의 등불이 되겠습니다.

10년 동안 사랑해 주신 불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

